

People & Life

국립공원의 야생화

구박받는 머느리 사연 담은 고약한 이름

<137> 머느리밭씻개

머느리밭씻개는 마디 풀과에 속하는 일년초로 햇볕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란다.

이름에 대해서는 지질 예방에 쓰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지만, '머느리밭씻개'라는 이름이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가 일제 강점기인 점으로 미루어 일본에서 '이웃자식 밭씻개'라고 부르던 것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머느리'로 바꿨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한국사진기자협회에 경향신문 김정근 차장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지난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신문·통신사 사진기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차 정기총회를 갖고 제40대 한국사진기자협회장에 경향신문 김정근 차장(사진), 부회장에 배재만 연합뉴스 차장을 각각 선출했다. 2년 임기의 김 신임회장은 1993년 경향신문 사진부에 입사해 현재 청와대 출입기자로 재직 중이다.

/김진수기자 jeans@

전남대 주정민 교수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 위촉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가 최근 방통위 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주 교수는 앞으로 3년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원정책의 심의, 지역방송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용욱씨 종교 철학집 '그래도, 크리스천...' 출간



언론인 김용욱(66)씨가 자신의 종교 철학을 담은 '그래도, 크리스천으로 살겠다(上·下)'를 펴냈다. '김용욱의 성(聖)·속(俗) 산책기'란 부제를 단 상권은 신앙생활과 신앙논단, 그리고 생활에세이를 다뤘다. 또 '걸고, 달리면서 생각하는 삶'이라는 부제의 하권은 리처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의 책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곡성 출생인 김씨는 조선대를 졸업하고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전남일보 주필 겸 편집담당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언론중재위원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현역임대 비사격 만점 '특등사수' 됐다



지난달 11일 현역으로 입대한 연기자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29)가 뛰어난 사격실력으로 '특등사수'로 뽑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하웅(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는 지난달 26일 실시된 육군 5사단(열사부대) 신병훈련소 사격훈련에서 주간 사격 20발 중 19발, 야간 사격 10발 중 10발을 각각 명중시켜 사격점수 만점을 받았다. 비는 최초 연습사격과 측정사격을 단번에 통과했고, 사격점수에서도 만점을 받아 특등사수로 인정받았다.

비에 앞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인기 배우 현빈(29·본명 김태광)도 특등사수로 만점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來光 최창섭 지역신문발전위원장

"지역신문 생존의 길 주민 밀착기사에서 찾아야"

"지역신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시각과 특성화를 통한 주민들과 밀착된 기사가 생산돼야 합니다."

최창섭(70)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지난 3~4일 이틀 동안 광주 출리대인 광주 호텔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1 지역신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신문의 미래에 대해 "다매체 시대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신문과 온라인 매체는 영원히 공존할 것이며, 지역신문도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생존을 넘어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우수 사례와 시행착오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신문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역인문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입니다. 무엇보다 행사가 많은 기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사례를 찾고, 지역화된 뉴스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는 "컨퍼런스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역신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토지

널리즘'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신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취재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지역민들과 섞이고 어울려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지역과 밀착된 뉴스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뉴스는 지역민을 위한 특성을 살려야 생명력이 있다"면서 "글로벌 뉴스나 전국 뉴스와 같은 다양하고 정보 큰 뉴스도 향토를 바탕으로 지역민을 위한 시각에서 봐야 하며, 그것이 지역신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장점이다"고 조언했다.

"일본 아오모리 지방에 태풍이 불어닥쳐 사과가 거의 다 떨어졌다. 그때 한 농부는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로 임시 생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팔았다. 소위 '대박'을 쳤다.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다. 지역신문 종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 한다. 소셜네트워크(SNS)의 시대에 지역 기자들도 적극적으로 대

처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 방향과 관련 "현재 등록된 지역신문만 1000개로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요건을 강화해 정말로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우수한 지역신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선택과집중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3일 열린 '프리 컨퍼런스'에서는 최창섭 위원장이 올해 새로 출범한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선 지원대상 지역신문사 대표들로부터 위원회에 바라는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4일에는 스마트시대의 미디어전략, 보도 및 편집, 독자친화형 신문제작 및 지역공헌, 경영·광고·조직혁신 등 총 4개 분야 12개 썬션으로 나눠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프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30개(일간 15개사, 주간 15개사) 신문사가 참여, 모두 42건의 사례를 발표할 뒤 열띤 토론을 벌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광주대(총장 김혁중)는 최근 대학 호심관 소강당에서 간호학과 2학년생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광주대 제공)

전남개발공사 '1사1촌 자매결연' 봉사활동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용주) '나눔이 봉사단'은 지난 3~4일 강진군 직천면 황금담마을을 찾아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고추따기, 닭 모이주기, 도배·장판교체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장흥 종합복지관 다문화가정 3쌍 합동결혼식



장흥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선자)은 최근 궁전웨딩컨벤션에서 관내 저소득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동거부부 3쌍의 합동 결혼식을 마련했다.

(장흥군 제공)

서해어업관리단, 청해초 학생 초청 승선체험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용균)은 최근 완도항에서 전남 청해초등학교 학생·교사 등 50여명을 초청해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호남4·19혁명단체 총연합회 학술 집담회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4일 광주 금수장호텔 연회장에서 4·19 관련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의 4·19의기가 서울·마산 시위와 함께 전국적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학술 집담회를 가졌다.

광주·다아이치현 변호사회 친선교류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강행욱)는 지난 3일부터 2박3일간 광주지방변호사회 집행부 및 전체 회원과 일본 아이치현변호사회(회장 나리타 키요시) 친선방문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세미나 등 친선교류 행사를 열었다.

지난 3일 실시한 공동세미나에는 '범죄피해자의 인권'이란 주제로 강성두 변호사와 '일본의 형사사법에 관하여'란 주제로 아이치현변호사회의 소노다 마사시 변호사가 각각 발제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일본 방문단 측에 도자기와 나전칠기 손거울을 기념선물로 증정했다.

/연합기자 chadol@

'포세이돈' 정갑수 군산해경 서장 순직



4일 오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순시하다 서해 해상 경비함에서 떨어져 숨진 정갑수(56) 서장은 오랜 함정 근무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지휘관이다.

만 33년간의 해상생활 가운데 13년 동안 함정에서 근무한 그는 후배들에게서 '수호신(포세이돈)'으로 존경받았다. 2007년 총경으로 승진하고서 경비구난국 수색구조과장과 정보수사국 형사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1월 군산해경 서장으로 부임한 그는 투철한 경찰관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

선 인물로 평가받았다. 부하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렸지만, 업무 처리만큼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평소 소통을 중시하던 고인은 수시로 직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가 하면 주말에도 쉬지 않고 파출소와 함정 등을 돌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기도 했다.

해경은 고인의 장례를 8일 군산해경에서 해양경찰장장(5일)으로 치를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황금추 동광건설 회장

골프경기 노익장 과시

'에이지 슈트' 기록



황금추 동광 건설·무등산 컨트리클럽 회장이 최근 '에이지 슈트'를 기록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동광그룹에 따르면 최근 황금추 회장이 화산 무등산컨트리클럽 골프경기에서 78타를 기록, 에이지 슈터가 됐다.

평소 80대 중반 타수를 치는 것으로 알려진 황 회장은 이날 절정의 아이언샷 감각을 선보이며 에이지 슈터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에이지 슈터란 18홀 골프 경기에서 본인의 나이와 같거나 더 적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것으로 에이지 슈터라고 한다. 황회기의 골퍼들에게는 꿈의 기록으로 불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이준근(한국마사회 광주지점장)·형연순씨 장남 병두군 김중화·이우정씨 장녀 소영(텔런트)양=12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뉴힐타워 호텔 3층 그랜드볼룸.
▲양완승(사업)-정연숙씨 장남 나라군 이상재(광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명숙씨 장녀 현양=12일(토) 오후 12시10분 이화웨딩캐슬(동구 용산동) 2층 행복홀.

중친회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 및 교양강좌=7일(월) 오후 6시 30분 화랑궁회관 062-224-1800.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정병식) 월례회=7일(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참된 나 찾기 무료학습 공부=매주 목요일 오전 11시~12시 말바우 시장 농협 3층 리듬짜짜명상댄스동호회 010-6609-9068.
▲어린이재단 전남이동보호전문기관(www.e1391.or.kr)=전남지역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상담 및 보호·치료를 위한 활

동과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회복을 도움.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신용회복위원회=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하여 채무종합상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소액금융지원 등을 지원.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금남로5가 금호중금빌딩 6층·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새대안노인회취업지원센터 노인취업 대표전화 개통=노인 취업 상담과 알선을 위한 대표 번호(1577-6065) 개통. 지역취업지원센터장을 통한 취업 상담.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와 '#버튼'을 통해 광주시연합회 취업지원센터로 연결.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긴급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생필품), 친자확인검사지원 및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사)우리문화예술원 통통염서

Advertisement for funeral services (Mokbun) for various families, including names and dates.

를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062-223-9191.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상담 및 성교육. 062-673-1366, 062-671-4050.
▲광주해버리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부음

▲김길주씨 별세 창곡(조선이공대 교수)·창춘(건설업)·창성(김창성토목영어학원장)·남철(건설업)·보영(노벨병원 원장)·소양씨 부친 상=발인 9일(수) 무등장제식당 101호 062-515-4488.
▲강성빈씨 별세 경범·중현·경구씨 부친상=발인 7일(월) 무등장제식당 101호 062-515-4488.

Advertisement for funeral services (Mokbun) for various families, including names and dates.